

세 종류의 안식일들

The Three Sabbaths

어떤 사람은 많은 신들을 말하지만, 참으로 어떤 사람은 안식일들을 유일하게 두 가지 이상으로 말한다. "하나님은 한 분 밖에 계시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들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신과 많은 주들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 분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 분 안에 있으며, 또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니, 만물이 그 분을 통하여 있고 우리도 그 분을 통하여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 4-6. 그러므로, 비록 여러 가지의 "안식일들"이 있을지라도, **야의 안식일**을 참된 안식일로 일컫는다.

야의 안식일

"안식일" 언어는 안식한다는 뜻이다. 이는 히브리 언어를 영어로 옮긴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 언어를 이해한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사용한 "안식일" 언어도 같은 사고방식으로 그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므로 참으로 네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말한다.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내가 일할지니 네 모든 일을 할지니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그 날에는 너와,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있는 네 타국인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엿새 동안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 날을 복 주고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8-11.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안식일을 판단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안식을 비판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은 단순히 육신적인 피곤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두 가지 사실들로 이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24 하나님께서는 마치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영"이 아니시다: '그분이 영'이시다고 개정판 성경 난외에서 사실대로 제공하였다.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주는 땅 끝들의 창조주시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이사야 40:28 주께서 피곤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안식일은 육신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지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요한복음 4:24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일을 끝마쳤기 때문에 안식하셨다. 그분께서 일을 끝마쳤을 때, 훌륭하게 끝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 분이 그것을 둘러보시고 "아주 좋았더라." 고 선언하셨다. 그것 안에 흠이 없었다. 그분 앞에 있는 것들이 아무 결점이 없었다. 그러므로 여섯째 날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끝났고, 훌륭하게 완성되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시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의 하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창세기 2:2.

그분께서는 일을 끝내시고 애석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없고, 후회하시는 것도 없다. 그분의 안식은 사람이 자주 안식하는 것처럼, 손상된 안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한 것과 같이, 또 다시 내일 내가 일을 하러 가야한다는 것도 없고;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했으면 아주 좋았으련만 하는 것도 없다; 내가 만일 그것을 다시 한번 만들게 되면, 내가 개선하여 더 잘 만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내가 마지막 날에 일한 것이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싫다고 하는 것도 없다; 내가 아주 피곤하였기 때문에 그 일을 절반도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도 없다; 그분께서는 그러한 본질이 없으시다. 그분께서 끝내신 일의 모든 부분이 완전하였다, 그리고 그분께서 안식하실 때, 그 일을 끝내신 것을 응시하시고 순수한 기쁨을 취하셨다, 왜냐하면 그 일이 완전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이 안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이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다. 안식은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무거운 짐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완전한 안식이고, 순수한 안식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다,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하늘과 땅에서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 그러므로 이 안식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께서 모든 영혼들에게 외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쉬음을 주리라." 마태복음 11:28. 그분 안에서 그 안식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그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외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따라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오로지 주께서 끝내신 일로부터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도달하게 됨을 발견하였다.

이 안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는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완전하게 우리 자신의 것처럼 끝냈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 분이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29.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완료된 후, 뒤따르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함을 발견한다.

예수께서 주시는 안식은 죄로부터 안식하는 것이다. 그분을 부르는 자들이 그들의 무거운 죄들에 짐을 지고,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우리가 제일 잘하였다고 한 일들이 전적으로 무가치하다. 그리스도께서 "선한 일에 열심있는, 백성들을 가지고 계신다." (디도서 2:14,15);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한 일들을 역사 하신다. 오직 그분의 일이 영속적이다. "그의 역사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우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시편 113:3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2:8-10.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 디도서 3:5,6 우리가 구원된 것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분께서 선한 일들이 풍성하도록 하신 것들이 우리를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일한 것으로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신 것을 통하여서이다. 만일 우리 자신이 일한 것으로이면, 따라서 우리 자신의 안식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분께서 일하신 것으로 완전한 안식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가 그의 경이로운 일들로 기억되게 하셨으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공훈이 충만하시도다." 시편 111:4 또는 글자 그대로, "그분께서 그분의 경이로운 일들을 기념하셨다." 그 기념하신 것이 제 칠일이고, 그분이 일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안식하신 날이다. 그 날을 그분께서 축복하시고 또 신성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함이 그 날로부터 결코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한 것이다." 비록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 날을 중요시 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거룩함이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 4:9.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칠일을 영원한 안식일로 선언하시고, 그분의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끝내신 일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명상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다.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신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지요! 이는 주께서 사람들의 아들들 앞에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하여 베푸신 것이니이다." 시편 31:19. 이것이 우리에게 상기케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골로새서 2:10.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에 저주를 가져왔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견디어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일이 영속된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를 통하여, 바로 사람이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 없이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고린도후서 10:15.

유대인의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 또는 유대교식 안식일과 같은 그러한 강한 편견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안식일로부터 월등한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제 칠일을 지키면, 그가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조금도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가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주님의 안식일과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 사이가 다르다.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 칠일이 주 (야)의 안식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것은, 주님의 안식은 정신적인 안식이다, 이는 제 칠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사람이 육신적인 고된 노동을, 매 주 일곱째 날에 중단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사람이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에 일을 중단하고, 다음날 해질 때까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 또 어쩌면 그가 정연하게 육신적으로 더 좋아져서 다시 일하려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직무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그들 자신들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언제 노동을 중단할지라도 그분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주님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은

오직 그분의 완전한 일하심에서 오기 때문이다, 이 안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을 정말로 믿는다." 그러므로 오늘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자가 명백하게, 비록 매주 일곱째 날에 안식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구별된다. 그의 안식은 그 자신의 안식이고, 주님의 안식이 아니다.

이것이 다른 점을 그대가 이해하는가? 유대인의 안식일이 매주 주님의 안식일과 같은 날에 해당된다, 그러나 어떤 의미들로도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사람이 그 자신의 일과 그 자신을 상징할 뿐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주님의 일에 싸인하는 대신에, 자신의 의로 싸인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고 유대인들이 예수께 질문한 것이 나타났다. 그들이 그들 자신들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과 동등하게 평가하였다. 그들의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아니고, 오직 형식적이다. 그러한 안식일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주께서 정하신 완전한 일에 의하여 구원됨을, 우리 자신의 일들에 의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안식 안으로 인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제 칠일이 주님의 안식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저 부당한 안식일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주님의 안식: 우리가 주님의 안식 그대로 받아들이자.

로마 캐톨릭 교회의 안식일

로마 캐톨릭 교회의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안식일로부터 무엇인가 완전히 다르고, 또 주님의 안식일로부터도 무한히 다르다. 주님의 안식일은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오직 그것들 안에서 안식한다,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시게 허락한다; 하나님 홀로 행하실 수 있고, 그분 자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유대인의 안식일이 나타낸 것은, 자기 과신과 열심으로 행하였고, 무가치한 시도였다; 그러나 교황의 안식일이 나타내는 것은, 사람의 일이 실제로 오직 선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대체한 것이다. 이것이 더욱더, 주님의 계명의 윤곽조차도 면제해 버린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님의 안식일의 실체가 충분히 제시되었고 계속되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우리가 이해한 유대인의 안식일은 주님의 안식일을 내용 없이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오직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였다. 그들의 안식일이 주님의 안식일과 같은 날에 해당되지만, 그 날이 주님의 안식일이 아니고 사람의 안식일이다. 캐톨릭 교회의 안식일은 그 형식조차도 주님의 안식일과 아무 공통점이 없다, 또한 바로 주님의 안식일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따라서 로마 캐톨릭 책의 표제 "참된 종교를 찾을 수 있는 확실한 길"에서 말하기를 "거룩한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고 하였다, 이는 더더구나 성경 어디에서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것과는 반대로 성경이 말하기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8) 이것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된다.

이것이 많은 인용문들과 비슷한 구절들에서 오직 하나를 숙고하였지만, 이것이 충분히 나타낸 것은 캐톨릭 교회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또 주님의 말씀 위에 캐톨릭 교회 그 자체를 고정시켜 놓았다. 이는 주 [야]의 안식일을 완전히 다른 날로 대신하였다, -- 그 분께서 그분의 일을 시작하신 후 지금까지, 하나님 그분 자신조차도 하루를 그분의 안식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 그러므로 그들이 정연하게 하나님 위에 그들을 높여서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그 교회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에 관하여 말한 인용문을 주의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셨다. 사실상, 성경이 그러한 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른다. 성경에서 그 날이 주일 중에서 첫째 날로 알려졌고, 그 날을 일하는 날로 단언한다, 그러나 로마에서 일요일을, 2일 중에 일부분들을 하루로 구성하여 만들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날은 매주 일곱 번째 날이다. 그 날을 그분 자신이 거룩한 날로 만드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분께서 요구하신 대로 오직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셨는데도, 만일 사람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것에 뒤따라서, 사람 자신이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분명하다. 일요일을 이 세상에서 신성한 모든 것처럼 사람이 순응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요일을 안식일에, 거룩한 실체들인 것처럼 속여서 만들어낸 그 능력에 싸인으로 세운 것이다. 만일 사람이 사물 하나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가 어떤 것이든지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만일 사람이 하루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가 만들 수 있는 그것을, 그 자신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로마 캐톨릭 교회의 안식일인 일요일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교황이 주 [야]의 지위를 취하고 죄인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다는 싸인이다.

제 칠일이 하나님의 능력의 싸인이고 그분 자신의 일들에 의하여 구원하신다, 그런데 한편, 일요일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한 싸인이고, 자신이 행함으로 그 자신을 구원한다, 이는 주님을 경멸하고, 그분으로부터 완전히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부인하고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이것을 로마 캐톨릭 교회 일요일이 말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간주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 무수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로마 캐톨릭 교회의 일요일을 주님의 안식일로 지지하고 지키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싸인을 지킬지라도,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믿는다. 이 기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서, 어쩌면 그들이 완전히 모순이 없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이 완전히 일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것을 다루고 있으므로, 사람들이 어떤 수단으로 일요일을 관련지어서 세운 것에 개의치 않는다; 그리고 사실상 주님의 안식일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된다; 로마 케톨릭 교회의 안식일인 일요일의 의미는 사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고, 또 사람 자신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

그대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중립을 지키거나 부정직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말씀들은 뚜렷하였다. 그들이 오직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해할 여지가 없었다. 그 분께서는 솔직하고, 명백하였으며, 호의적이었고, 강력하셨다. 그 분이 어디에서 서 계신지 항상 백성들이 알았다. 그 분은 아침으로나 낮은 표준들로 인기와 유익을 얻기 위하여 시도하지 않으셨다. 그 분은 죄는 죄라고 말하였고, 또 그것을 그 이름대로 불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반대하여,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용이한 어떤 비난을 찾기를 소망하였다. M.L. ANDERSON